

가정교회(House Church) 사역을 통한 평신도 성경적 상담사역의 활성화 방안 연구 : 길벗교회를 중심으로

김 영 민*

국문초록

가정교회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관한 개념 가운데 중요한 개념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이다. 그런데 가정교회는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한다. 가정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교회를 통해 성도들은 한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과 영적 가족으로서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된, 깊은 의존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가정교회 구성원들 상호 간에는 그 어떤 상담보다 활발하고 효과적인 평신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교회 사역은 평신도 성경적 상담사역의 활성화에 크나큰 도움을 주기에 가정교회 리더들이 성경적인 상담의 원리와 방법으로 무장된다면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놀라울 것이다. 이 시대는 특별히 소그룹과 셀과 가정교회에 대한 관심이 집중하고 있기에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서 평신도 성경적 상담사역이 활성화되면 가정교회 사역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성경적 상담과 평신도 상담사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결국 가정교회 사역과 성경적 상담과 평신도 상담사역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며 이 세상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서 복음을 힘 있게 증거하게 될 것이다.

중심단어 : 가정교회, 성경적 상담, 평신도 상담, 성경적 상담훈련, 평신도 성경적 상담사역

• 논문 투고일: 2010년 04월 06일
• 게재 확정일: 2010년 05월 13일
* 길벗교회

• 논문 수정일: 2010년 04월 26일

I. 여는 글

오늘 우리 시대는 지식과 정보와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여 사람들의 외적인 삶은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고 편리해졌지만 사람들의 내면적인 삶은 훨씬 더 피폐해졌고 공허해졌다. 극심한 생존 경쟁으로 인하여 현대인들은 더욱 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그 결과 인간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의 모습이 아니라 메마르고 자기중심적이며 파괴적인 모습으로 전락(轉落)하고 말았다.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이루어진 한 몸이며,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의 각 지체들이다(엡 1:22-23; 골 1:18; 고전 12:27; 엡 5:30).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한 사귄과 교제(koinonia)가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며, 신약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¹⁾

그러나 오늘 날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오늘 날 교회는 직분과 조직과 활동과 프로그램이 있는 조직체의 모습은 보이지만 성도들 상호간에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유기체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²⁾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자기 내면의 이야기를 마음을 열고 들어줄 사람들을 갈급하게 찾게 되었고, 그리하여 소그룹에 대한 관심이 점증(漸增)하게 되었다. 오늘 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그룹 목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별히 소그룹 목회와 관련되어서 셀 교회(cell church), 가정교회(house church 혹은 home church), G-12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여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 Wolfgang Simson, *House Church: Saturation Church-Planting*, 황진기 역, 『가정교회: 침투적 교회개척론』 (서울: 국제제자 훈련원, 2004), 19.

2) 박영철, 『셀 교회론』 (서울: 요단출판사, 2004), 7-8; Simson, *House Church*, 23, 60, 62-63.

가정교회는 매주 모이는 목장(牧場)³⁾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누게 된다. 삶을 나눌 때 중요한 문제가 드러나면 이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며 극복해 나갈 것인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주고, 또 기도도 해준다. 그리고 모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서로를 돌보게 된다.⁴⁾ 그러기에 가정교회에 소속된 목원들 사이에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서로 마음을 열고 자신의 문제를 깊이 나누고 도움을 받으며 서로 짐을 함께 지는 것이다. 안경승 교수는 이런 모습을 “공동체적 접근의 돌봄의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피상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소그룹 내의 구성원들 간의 상호역동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소그룹을 통해 자기 자신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한다.⁵⁾ 이런 모습 때문에 가정교회는 특별히 평신도 상담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사역의 장(場)이 된다. 그러므로 가정교회 사역에 상담 사역을 잘 활용하고, 특별히 가정교회 리더들에게 성경적 상담 훈련을 시행하여 그들의 사역에 적용하며 활용케 한다면 평신도 성경적 상담 사역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전 교회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 성도들과 가정교회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도 큰 유익이 될 것이다.

II. 펴는 글

1. 길벗교회가 추구하는 가정교회

길벗교회가 추구하는 가정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와 교제와 가르침과 나눔과 전도에 힘썼던 사역을 지역 교회의 형태로 행하

3) 지역 교회 내의 각 가정교회를 ‘목장’이라 부르는데 양을 돌본다는 의미가 있다.

4)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1999), 81-89;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반, 1996), 189-190.

5) 안경승, “평신도 상담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의 성격”,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권(2004): 214-215.

는 것”이다.⁶⁾ 가정교회는 그 성경적 원형을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로 본다. 가정교회는 초대 교회 공동체의 원리와 정신과 역동성을 기초로 하되, 조직과 운영 방법은 오늘의 시대적, 문화적 상황에 맞추어서 신축성 있게 적용해 나간다.⁷⁾

가정교회의 핵심은 영적 가족으로서의 ‘관계의 긴밀성’이다.⁸⁾ 가정교회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영적 가족의 공동체적인 삶을 이루어 가는 현장이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유기적인 긴밀한 연합을 맺어 사랑과 신뢰와 이해와 수용과 용서와 섬김과 나눔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함께 성숙해가는 진정한 교제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초대 교회로부터 21세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정교회의 속성을 지닌 공동체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공통적인 핵심이 있다. Wolfgang Simson은 현대의 가정교회와 신약 성경과 초대 교회에 대한 연구를 통해 ‘모여서 함께 먹음’, ‘어떻게 순종할지 피차 가르침’, ‘물질적 축복과 영적축복을 함께 나눔’, ‘함께 기도함’을 가정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되는 네 가지 요소로 보았다. 그는 이 네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해 온 가정교회의 기본적인 뼈대라고 말한다.⁹⁾ 이 요소들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서 생생하게 역사할 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강한 생명력과 운동력과 활력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탕이 되어 자연스럽게 교회 외부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교회 내부와 외부에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강한 상승작용을 가져왔다.¹⁰⁾

6) 최상태, 『21세기 新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66.

7) Robert Banks & Julia Banks, *The Church Comes Home*, 장동수 역,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서울: IVP, 1999), 43, 65-71.

8) Lois Barrett, *Building the Family Church*, 임종원 역, 『가정교회 세우기』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2002), 14-16.

9) Simson, *House Church*, 144-155.

10) Banks, *The Church Comes Home*, 61-62.

초대 교회는 가정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되는 네 가지 요소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서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 교회는 오늘 날과 같은 전도와 선교에 관련된 수많은 전략과 모임과 기술과 방법과 프로그램과 자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외부와 이방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갔다. 초대 교회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면서 냉엄한 통찰과 통렬한 반성과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오늘 날의 교회가 안타까운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초대 교회처럼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는 핵심 요소인 “함께 먹음, 피차 그리스도께 순종함을 가르침, 물질적 축복과 영적 축복을 함께 나눔, 함께 기도함”의 요소들이 교회 안에 생명력 있게 역사하도록 초대 교회 가정교회 공동체 모델을 시급히 회복하는 것이다.

2. 성경적 상담과 평신도 상담

1) 성경적 상담

성경적 상담은 오늘 날 유행하고 있는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상담 이론을 근거로 한 대부분의 기독교 상담과는 달리 성경을 모든 상담 이론의 근거로 삼고, 성경의 원리와 방법을 토대로 하며,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문제에 접근하는 상담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상담이론에 있어서 상담의 목적은 피상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데 있다. 그러나 성경적 상담의 목적은 그것보다 한층 더 높은 차원에 두고 있다. 일반적인 상담이론이 개인에 집중하고, 개인에 대한 관심과 행복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서 성경적 상담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성경적 상담은 개혁주의 신학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heart)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¹¹⁾에 있

11) 김의환, 『개혁주의 신앙고백집』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3), 177, 248, 258; Thomas Vincent, *The Shorter Catechism Explained from Scripture*, 홍명창 역, 『성경 소요리 문답 해설』 (서울: 여수론, 2004), 25-30.

는 것처럼 성경적 상담의 핵심도 개인의 행복과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이다.¹²⁾ 따라서 성경적 상담의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는데 있다.”¹³⁾ 성경적 상담은 피상담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가지며,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변화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계관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성경적 상담과 같이 상담의 목적을 성경적인 올바른 토대 위에서 바르게 설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피상담자의 단순한 문제 해결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을 통해서 피상담자의 문제가 바르게 해결되고, 또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담에 있어서 어떤 기본 개념을 가지고 상담을 시작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상담자가 상담을 할 때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간에 기본 개념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¹⁴⁾ 성경적 상담은 성경적인 전제와 원리를 따라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다.¹⁵⁾ 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② 사람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이다. ③ 사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다. ④ 상담의 원리와 방법은 성경에 근거하며 그 핵심은 복음이다. ⑤ 성경적 상담의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⑥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존재이다. ⑦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성경적 상담의 방법으로 “사랑하라(Love), 알라(Know), 말하라(Speak), 행하라(Do)” 모델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성경이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상담 방법론을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대부분의 피상담자들은 마음에 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 않고, 대부분 외적인

12) Edward T. Welch, “성경적 상담학의 특징”,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목회상담학 박사과정 강의노트』 (2002년 1월 8일); Jay E. Adams, *The Christian Counselor's Manual: the Practice of Nouthetic Counseling*, 정정숙 역, 『상담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1999), 233.

13) 정정숙, 『기독교상담학』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1999), 51, 58, 59.

14) 정정숙, 『기독교상담학』, 46.

15) 황규명,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 (서울: 바이블리더스, 2008), 50-117.

변화에 자주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방법은 상담 단계를 말하기보다 기능이 나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변화의 도구로써 다른 사람의 삶 속에 기능을 발휘하도록 4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이 4가지 기능에는 어떤 순서가 있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 상담을 할 때는 자주 이 4가지 모두를 동시에 사용하게 된다.¹⁶⁾ 성경적 상담은 상담자와 피상담자가 친구관계로 연결되어지는 성경적 ‘우정의 방법’을 방법을 사용한다. 친구는 신뢰와 이해의 관계를 세우고, 나의 삶에 있어서 변화의 일부분이 되어 필요한 영역에서 도움을 주며, 후원해주며, 책임을 저준다. 그러기에 성경적 상담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적 우정’이다. “사랑하라, 알라, 말하라, 행하라”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The Two Great Commands)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마 22:37-40)에서 비롯된 것이다.¹⁷⁾

이처럼 성경적 상담은 성경을 견고한 기초와 토대로 하여 세워진 상담이론과 방법이며,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이다. 길벗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성경적 상담으로 가정교회 리더들에게 체계적인 상담 훈련을 시키고 있다. 성경적 상담훈련을 받는 리더들은 자신이 배운 진리들을 자신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갈 뿐만 아니라 목장에서 목원들을 섬기는데도 잘 활용해 나가고 있다.

2) 평신도 상담

평신도 상담은 전문 상담과 구별된 개념으로 상담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비전문가, 혹은 제한된 훈련을 받은 준전문가에 의한 돌봄을 의미한다.¹⁸⁾ 그러기에 평신도 상담자(lay counselor)에 대해 ‘비전문 상담자’

16) Paul David Tripp, “Methods of Biblical Change,”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목회상담학 박사과정 강의자료』 (2001년 1월 16일), 69-70; “Homework and Biblical Counseling, Part 2,”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1, no. 3 (Spring 1993): 6; 황규명,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 204-209.

17) Tripp, “Methods of Biblical Change,” 113.

18) Siang-Yang Tan, *Lay Counseling: Equipping Christians For a Helping Ministry*, 미션월드 라이브러리편집부 역, 『평신도 상담』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1997), 11.

(non-professional counselor) 혹은 '동료 상담자' (peer counselor)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보편적으로 평신도들은 문제가 있을 때 목회자나 전문 상담자를 찾아가기보다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가서 상담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상담이 평신도 상담이며, 이 때 도움을 주고 돌보는 사람이 평신도 상담자이다. 길벗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정교회의 리더들을 위한 성경적 상담훈련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 이제까지 상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적은 없지만, 신앙의 경륜과 인생의 경험이 있는 성숙한 평신도들인 가정교회 리더들이 체계적인 성경적 상담훈련 과정을 이수함을 통해서 구성원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돌보고 섬기는 평신도 상담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¹⁹⁾

그리스도인들이 평신도 상담사역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요 13:34, 35).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경험한 주님의 사랑을 형제들에게 실천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범죄한 형제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 회복케 함으로써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다.(갈 6:1, 2) 이것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 상담을 포함한다.²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다가가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와 치유의 도구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²¹⁾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돌아보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

19) 정정숙 교수는 단기간의 훈련을 통해서 문제를 가진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성경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평신도를 대상으로 한 비전문가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은 많은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몇 주 혹은 몇 개월의 교육으로 전문가연하는 일이 생길까 염려되기에 신중한 훈련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정숙, 『기독교 상담학』, 630-631.

20) Tan, *Lay Counseling*, 29.

21) Tan, *Lay Counseling*, 22.

려하고 돕고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고, 또 하나의 공동체로써 함께 이 땅에 복음 증거 사역과 세상을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평신도 상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의 본질을 회복케 하며, 교회가 이 세상 속에 힘 있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평신도 상담은 상담자에 대한 접근과 도움의 용이성, 그리고 목회자의 사역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점 등의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케 하여 교회 안팎에서 사명을 힘 있게 감당하도록 하는 점이다. 평신도 상담은 특별히 교회가 '유기체로서의 공동체', '격려하는 공동체', 그리고 '치유하는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유기체로서의 공동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몸이며(엡 1:22; 골 1:18), 신자들은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다.(롬 12:5; 고전 12:12, 27)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며 상호작용을 통하여 친절하고 순수한 교제(fellowship)를 갖는다.”²²⁾ 교회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는, 성도 상호간에 결코 분리될 수 없고 서로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공동체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기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인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시며, 약하게 보이고 덜 귀히 여겨지며 덜 아름답게 보이는 지체들도 요긴해지고 존귀해지며 아름다워져서 모든 지체가 부족함이 없이 고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전 12:12-27).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성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 생활해 오고 있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상

22) Lawrence J. Crabb, Jr., *The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정정숙 역, 『성경적 상담학』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7), 190.

처와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서 스스로없이 드러내놓고 함께 부둥켜안고 울 수 있는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교회가 성도들 상호간에 지체가 되어 서로 돌보는 '유기체로서의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신도들이 서로가 한 몸을 구성하는 지체인 것을 자각하고 서로 돌아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해주는 평신도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평신도들은 건강한 지체로서 서로를 잘 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결집된 건강한 몸으로써 세상을 향해서도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2) 격려하는 공동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를 격려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상호간의 사랑의 지원' ('mutual loving support')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²³⁾ 성경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성도들 상호간에 더욱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히 10:24, 25). 이렇게 성도들은 서로에 대해서 "들어주는 귀와 지지(支持)하는 말과 관심어린 마음을 가지고"²⁴⁾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고통을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 같은 교회를 오랫동안 함께 출석하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대화와 피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 이런 형식적인 대화와 피상적인 교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방해하고, 한 몸에 속한 지체로서 서로를 세우는 격려 공동체를 이루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격려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23) Crabb.,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190-191.

24) Lawrence J. Crabb, Jr. & Dan B. Allender, *Hope When You're Hurting: Answer to Four Questions Hurting People Ask*, 정동섭 역, 『상담과 치유공동체』 (서울: 요단출판사, 1999), 71.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며, 또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방편이다. 따라서 성도들 상호간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평신도 상담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실현되어 열매를 맺게 할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격려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게 한다.

(3) 치유하는 공동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으며,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다(마 9:35). 주님의 치유는 복음 진리를 통하여 육체뿐만 아니라 전인격을 치유하여 죄와 그 결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온전한 치유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주님처럼 전인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는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치유하는 공동체'로 잘 세워지면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있어서 탁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 이유를 크랩(Lawrence J. Crabb, Jr.)과 알렌더(Dan B. Allender)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새 언약으로 인해 성령께서는 실질적인 치유와 변화를 일으키는 자원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로 주셨다. 각각의 구성원이 역동적이고 영적인 일치를 위해 함께 결합된 결속 공동체는 치유 공동체이다.”²⁵⁾ “영혼은 인간관계 안에서가 아니면 치유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버림받고 학대당하고 수치심을 가지는 것은 관계의 맥락에서 생겨난다. 우리가 연합과 친밀감, 용서의 놀라움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도 관계의 한복판에서일 것이다.”²⁶⁾

평신도 상담은 성도 상호간에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서로 연합케 함으로써 서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다. 치유와 회복은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신뢰 관계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회가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도들 사이에

25) Lawrence J. Crabb, Jr., *The Safest Place on Earth: Where People Connect and Are Forever Changed*, 정성준 역,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서울: 요단출판사, 2005), 57, 60.

26) Crabb & Allender, *Hope When You're Hurting*, 141.

지체의식을 가지고 상호 연합하여 서로의 문제와 상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평신도 상담은 성도 상호간에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를 돕고,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고하면서 서로를 회복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3. 가정교회 사역을 통한 평신도 성경적 상담사역의 활성화

가정교회는 소그룹 구성원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진실하게 교제하고 삶을 깊이 나누는 '공동 가족'의 모임이기에 다른 어떤 모임보다 서로 마음을 열고 가면을 벗으면서 자신을 노출시키기가 쉽다. 물론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워하고 마음속의 얘기를 털어놓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되고 심중에 있는 이야기를 깊이 나누게 된다.

평신도 상담사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자신을 솔직히 노출해야 한다. 그런데 가정교회 모임은 목원들이 가족과 같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드러내면서 심중에 있는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나누기에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할 수 있는 성경적 상담의 놀라운 장(場)이 될 수 있다(살전 2:11). 전문 상담의 한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문 상담가에 의한 상담이 크게 효과적이지 못한 반면에 가정교회와 같이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 치유 공동체에서는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것은 가정교회와 같이 건강한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목원들이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낼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경청하는 동료들이 있으며, 더불어 문제 있는 사람들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의지가 되어 줄 수 있는 지지(支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⁷⁾ 가정교회의 리더들이 성경적 상담으로 훈련되어져 있다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목원들을 훨씬 더 잘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가정교회 리더들은 목장 모

27)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86-89.

임을 인도할 때 성경적인 방법으로 잘 인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원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그들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여 적절한 조언과 성경적인 해결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특별히 개인적인 상담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경우에는 목장 모임이 끝난 후 개별적으로 만나 지속적으로 돌보면서 상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가정교회 사역은 평신도 성경적 상담 사역의 활성화에 크나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교회 사역을 상담 사역에 잘 활용하고, 특별히 가정교회 리더들로 하여금 성경적 상담 훈련을 받게 하여 그들의 사역에 활용한다면 평신도 성경적 상담 사역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4. 길벗교회 가정교회 리더들에 대한 성경적 상담훈련과 적용결과

1) 가정교회 리더들에 대한 성경적 상담훈련

(1) 길벗교회 성경적 상담학교의 목적과 목표

길벗교회에서는 2005년부터 가정교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적 상담학교'를 교회 안에 개설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다. 길벗교회의 '성경적 상담학교'의 궁극적인 목적 역시 성경적 상담의 목적인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는데 있다."²⁸⁾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적 상담의 일곱 가지 기본 개념에 근거하여 커리큘럼이 편성되어 있고, 강의와 훈련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성경적 상담학교'의 목표는 "목장에서 목원들을 상담하고 돌보는 리더들에게 성경적인 상담의 원리와 방법들을 가르쳐서 목장에서 서로 삶을 나누는 '나눔의 시간'을 가질 때 모임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한 목원들을 만나 상담하면서 잘 돕고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데 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교회 리더들이 상담을 할 때 성경적인 상담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서 상담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28) 정정숙, 『기독교상담학』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1999), 51, 58, 59.

가정교회 리더들은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갈 성경적인 ‘상담의 틀’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 ‘성경적 상담학교’에서는 가정교회 리더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상담의 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있고, 훈련시키고 있다. 가정교회 리더들이 구체적인 상담의 틀을 가지고 구성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성경적 상담의 방법인 “사랑하라, 알라, 말하라, 행하라”의 방법을 상담의 틀로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가 “성경적 상담학교 상담훈련과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성경적 상담훈련을 받은 후) 성경적인 변화의 방법인 ‘사랑하라, 알라, 말하라, 행하라’ 모델을 잘 이해하게 되었고, 그 모델이 목원들을 상담하며 돕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질문에 대해 응답한 전체 31명의 가정교회 리더들 가운데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사람이 83.9%인 26명으로 이런 응답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가정교회 리더들이 성경적 상담학교에서 상담훈련을 받은 후 구체적인 ‘상담의 틀’을 가지고 목장에서 목원들을 상담하며 돌보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2) 길벗교회 성경적 상담학교의 과정

길벗교회의 ‘성경적 상담학교’는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의 두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급과정’은 16주 과정, 40시간으로 되어 있고, ‘중급과정’은 16주 과정, 32시간으로 되어 있다. ‘초급과정’은 가정교회 리더들이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을 알아 목원들을 상담할 때 성경적인 바른 토대 위에 기초한 상담의 틀을 가지고 상담 과정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초급 과정’에서 진행되는 강의로는 ‘성경적 상담과 심리상담’, ‘성경적 상담자의 자질’, ‘성경적 상담의 기술과 방법’, ‘성경적 인간 이해와 상담’, ‘성경적 자아상’,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 이혼, 그리고 재혼’, ‘성경적 의미로 본 남성과 여성’, ‘성경적 변화의 역동성’, ‘성경적 변화의 방법’ 등이다.

‘중급과정’은 ‘초급과정’을 통해 성경적 상담에 대한 원리와 방법을 배운 가정교회 리더들이 실제 목장 모임을 인도하고 목원들을 상담할 때 자신들이

배운 원리와 방법을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잘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얻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급 과정'에서 진행되는 강의로는 '위기 상담', '갈등 상담', '성경적 측면에서 본 부부 이해와 역할', '부부 갈등의 원인과 해결점', '청소년 이해와 상담', '중년의 위기와 극복', '노인 문제와 상담', '그룹상담(집단상담)', '성경적 상담과 성경활용' 등이다.

2) 가정교회 리더들에 대한 성경적 상담훈련의 적용 결과

'성경적 상담학교'의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을 수료하여 가정교회에서 목원들을 돌보고 상담하는 리더들은 성경적 상담훈련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삶에 많은 유익이 되었을 뿐 아니라 특별히 리더로서 목장 모임을 인도하거나 목원들을 개인적으로 돌보는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1) 설문조사로 나타난 성경적 상담훈련의 유익점과 적용 결과

설문조사는 길벗교회 가정교회의 리더로서 성경적 상담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은 사람 중에서 설문에 응한 3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²⁹⁾

설문지 응답의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정교회 리더들의 이전의 기독교 상담교육에 대한 배경을 알기 위해서 물은 질문에서 체계적인 기독교 상담교육을 받은 배경이 있는 사람이 9.7%이었고, 나머지 90.3%는 체계적인 기독교 상담교육을 받은 배경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61.3%는 기독교 상담교육의 배경이 전혀 없었다고 했는데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성경적 상담학교'는 가정교회 리더들이 체계적인 성경적 상담훈련을 받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속적인 심리 상담과 성경적 상담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인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가능성이 성경적 상담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항목에서 90.3%가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보였다. 이것은 성경적 상담학교를 통해

29) 설문조사 일시는 2007년 4월 15일(일) 오후1:20-1:50까지 30분 동안 주일 정규 가정교회 리더모임에서 이루어졌다.

서 성경적 상담훈련이 원래 의도한 목적을 따라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려는 성경적 상담의 목표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 목표에 따라 목원들을 상담하며 돌보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77.5%가 '그렇다' 이상으로 답하였다. 이것은 가정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목원들이 리더들로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묻는 항목에서 83.9%가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것을 보면 리더들이 상담 강의를 통해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을 상담하며 섬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모습은 목장이 목원들의 변화와 성숙에 있어서 올바른 토대 위에 세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적 자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 그리고 죄책감 등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목원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항목에서 77.4%가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했다. 성경적인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고, 또 부부간의 갈등 요인을 분석해 보아도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볼 때 대부분의 리더들이 성경적 자아상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고 목원들을 돕고 있다는 것은 목원들의 변화와 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적 의미에서 남성상과 여성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부부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구성원들을 잘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항목에서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한 사람이 77.5%였는데 이것은 부부관계의 갈등을 겪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남성상과 여성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인 것을 고려해 보면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교회 리더들이 목원들을 돌볼 때 사람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이고, 또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영혼들을 상담하고 돌보고 섬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때 자만하거나 지치게 된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리더들의 87.1%가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리더들 대부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목원들을 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여 고통 중에 있는 구성원들을 도와 열매가 나타났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이상의 응답이 61.3%로 나타났다.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해 성경적인 이해를 갖고 적용함으로써 목원들을 도왔다는 항목에서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한 사람이 71%였다. 결혼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리더들이 그 원리를 바로 알고 그것을 구성원들에게 적용하고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부부 간의 갈등을 방지하거나 또 올바르게 해결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원들을 권면할 때에 직설적으로 권면하기보다 수용적인 태도로 권면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예전보다 권면을 잘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항목에서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한 사람이 79.4%였다. 대부분의 가정교회 리더들이 성경적인 바른 상담자의 자질을 가지고 목원들을 잘 돌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적인 변화의 역동성’에 대한 강의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여 돕는 항목에 대해서 74.2%가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리더들이 ‘성경적인 변화의 역동성’을 잘 알고 목원들을 돌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의 우상’을 알고, 그 우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임을 깨닫고 목원들을 돕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87.1%가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리더들이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고, 마음의 우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음을 잘 알고, 그것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적 상담 방법인 “사랑하라, 알라, 말하라, 행하라”의 모델에 대한 이해

와 그 모델을 상담의 틀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한 사람이 83.9%였다. 이것은 대부분의 리더들이 성경적 상담 방법의 모델을 자신의 상담의 틀로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목원들을 상담하며 돕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갈등상담을 배운 후 갈등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이해하고, 성경적인 대처방법으로 갈등 가운데 있는 목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80.7%가 ‘그렇다’ 이상의 응답했다. 대부분의 리더들이 갈등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과 대처방안을 잘 알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 목원들을 효과적으로 돕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기상담을 배운 후 위기를 겪고 있는 목원들을 잘 이해하게 되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도 깨닫게 되었다는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한 사람이 77.4%였다. 대부분의 리더들이 위기상담을 잘 이해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목원들을 효과적으로 돕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적 상담과 성경활용을 배운 후 상담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씀을 목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그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게 되었다는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한 사람이 83.9%였다. 대부분의 리더들이 상담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또 실제적으로 말씀을 목원들에게 적용하여 그들을 잘 돕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성경적 상담훈련을 받은 후 목장에서 적용한 결과에 대한 간증

가정교회 리더들은 ‘성경적 상담학교’에서 성경적 상담훈련을 받은 후 실제적인 상담 현장인 목장에서 자신들이 배운 것을 목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한 결과를 부부 목장을 돌보고 있는 한 쌍의 목자 부부와 여자 싱글 목장을 돌보고 있는 한 명의 여자 목자의 간증을 통해서 조사했는데 그들은 ‘성경적 상담훈련’을 받은 후 목장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도움을 얻은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성경적 상담자의 자질’과 ‘성경적 상담의 과정과 기법’의 강의를 들은 후 목원들과 사람들을 대하고 권면할 때 그들이 신뢰하고 마음을 열 수 있

도록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함과 겸손한 마음,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로 인내하며 다가감으로 그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신뢰관계가 형성되자 목원들은 리더들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면서 변화의 길로 들어갈 수 있었다.

둘째, '성경적 상담의 방법'인 "사랑하라, 알라, 말하라, 행하라" 모델을 배운 후 그것을 자신들의 '상담의 틀'로 사용하여 목원들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여 그들과 그들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되었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실제 행동과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었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돌봐주었을 때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변화가 지속되게 되었다.

셋째, 성경적 상담을 배운 후, 사람들의 문제를 대할 때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나 상황에 초점을 두지 않고 마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과 죄가 문제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도록 이끌어주고 도움을 주었다.

넷째, 성경적 상담훈련과 실제적인 상담사역을 통해서 상담의 주요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을 더욱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써 목원들을 돌보게 되었고 섬기게 되었다.

설문조사와 간증을 통해서 볼 때 가정교회 리더들이 '성경적 상담학교'에서 성경적 상담훈련을 받은 것은 자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목장에서 목원들을 돌보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길벗교회에서 가정교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여 체계적인 성경적 상담훈련을 시행하여 실제 사역에 적용토록 하는 것은 성공적임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와 간증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길벗교회 목장은 리더들의 지도하에 목원들 상호간에 평신도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유기적인 공동체에 속한 한 몸의 지체들이며, 또 영적 가족으로서 상호간에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그러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을 통하여 많은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목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평신도 상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현장인 목장에서 목원들을 돌보는 가정교회 리더들이 체계적인 성경적인 상담훈련을 받아 사역을 감당토록 함을 통해 목장에서는 더 활발하게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상담도 성경적인 평신도 상담이기에 가정교회 사역과 가정교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경적 상담훈련은 평신도 성경적 상담사역의 활성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닫는 글

가정교회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관한 개념 가운데 중요한 개념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이다. 그런데 가정교회는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한다. 가정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교회를 통해 성도들은 한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로서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된 깊은 의존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정교회 구성원인 목원들은 지체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 되고, 지체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는(롬 12:15) ‘지체의 삶’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가정교회는 그 어디에서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목원들 서로가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고 산다. 그들은 육신의 가족처럼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서로의 장점은 격려하면서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서로의 약점은 풀어주면서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용납하면서 수용해주고 있다. 특별히 그들은 육적인 가족보다 더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 영적, 정서적, 육적인 필요들을 채워주고 공급해주면서 함께 성숙해가고 있다. 이런 모습은 목원들 스스로가 그들 상호간에는 육적인 가족들보다 더 긴밀하고 친밀하며 밀접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가족’임을 자각하게 만든다.

이렇게 가정교회는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만들기에 목원들 상호 간에는 그 어떤 상담보다 활발하고 효과적인 평신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 사역은 평신도 성경적 상담사역의 활성화에 크나큰 도움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평신도 성경적 상담사역의 활성화에 놀라운 장(場)이 되고 있는 가정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이 성경적인 바른 상담의 원리와 방법으로 무장된다면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놀라울 것이다. 본 연구자는 길벗교회에서의 가정교회 사역과 가정교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적 상담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가능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시대는 특별히 소그룹과 셀과 가정교회에 대한 관심이 점증(漸增)하고 있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서 평신도 성경적 상담사역이 활성화되면, 그것은 가정교회 사역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에 가정교회 사역은 더욱 확장되어지고 견고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정교회 사역에 관심 있는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경적 상담과 평신도 상담사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가정교회 사역이 활성화 될 뿐만 아니라 성경적 상담과 평신도 상담사역도 꽃을 피울 수 있는 놀라운 기회와 계기를 갖게 될 것이다. 결국 가정교회 사역과 성경적 상담과 평신도 상담사역이 서로 선순환적(善循環的)으로 역사하여 상승작용을 일으킴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숙시켜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복음을 힘 있게 증거하고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의환. 『개혁주의 신앙고백집』.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3.
- 박영철. 『셀교회론』. 서울: 요단출판사, 2004.
- 안경승. “평신도 상담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의 성격”.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권 (2004): 214-15.
- 정정숙. 『기독교 상담학』.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1999.
- 최상태. 『21세기 新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반 출판사, 1996.
-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1999.
- 황규명.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 서울: 바이블리더스, 2008.
- Adams, Jay E. *The Christian Counselor's Manual: the Practice of Nouthetic Counseling*.
- 정정숙 역. 『상담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1999.
- Banks, Robert & Julia. *The Church Comes Home*. 장동수 역.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서울: IVP, 1999.
- Barrett, Lois. *Building the Family Church*. 임종원 역. 『가정교회 세우기』.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2002.
- Crabb, Lawrence J. *The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정정숙 역. 『성경적 상담학』.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7.
- Crabb, Lawrence J. *The Safest Place on Earth: Where People Connect and Are Forever Changed*. 정성준 역.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서울: 요단출판사, 2005.
- Crabb, Lawrence J., & Allender, Dan B. *Hope When You're Hurting: Answer to Four Questions Hurting People Ask*. 정동섭 역. 『상담과 치유공동체』. 서울: 요단출판사, 1999.
- Simson, Wolfgang. *House Church: Saturation Church-Planting*. 황진기 역. 『가정교회: 침투적 교회개척론』. 서울: 국제제자 훈련원, 2004.
- Tan, Siang-Yang. *Lay Counseling: Equipping Christians For a Helping Ministry*, 미션월드 라이브러리편집부 역. 『평신도 상담』.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1997.

- Tripp, Paul David. "Homework and Biblical Counseling, Part 2."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1, no. 3 (Spring 1993).
- Tripp, Paul David. "Methods of Biblical Change."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목회상담학 박사과정강의자료』 (2001년 1월 16일).
- Vincent, Thomas. *The Shorter Catechism Explained from Scripture*. 홍병창 역. 『성경 소요리문답 해설』. 서울: 여수론, 2004.
- Welch, Edward T. "성경적 상담학의 특징".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목회상담학 박사과정 강의노트』 (2002년 1월 8일).

【 Abstract 】

The Study on an Approach to Vitalize the Lay Biblical
Counseling Ministry through a House Church Ministry:
A Case Study on the Gilbut Church

Young Min Kim

Gilbut Church

The house church is the church God intended to build. Important concepts of church in the New Testament are the body of Christ and the family of God. The house church functions as the body of Christ not just theoretically but also practically. In the house church and through the house church the saints, as parts of one body, are closely connected to each other and depend on each other. Because the house churches made the local church function as the body of Christ and the family of God, dynamic and effective lay counseling occurs between the house church members. Thus, it can be said that house church ministry greatly contributes to the vitalization of the lay biblical counseling ministry. If the house church leaders are trained with the principles and method of biblical counseling, its positive impacts will be amazing. These days especially,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small groups and house churches. Thus, if the lay biblical counseling ministry is vitalized through house church ministry, it would also play a positive role in the house church ministry. This means that the house church ministry would also be improved through the vitalized lay biblical counseling ministry. Ultimately, the house church ministry, biblical counseling, and the lay counseling ministry will produce a virtuous cycle, which would make the church healthy and God's people mature. In addition, they will witness, bring strong evangelism to the world and change people.

Key words: house church, biblical counseling, lay counseling, biblical counseling training, laybiblical counseling ministry